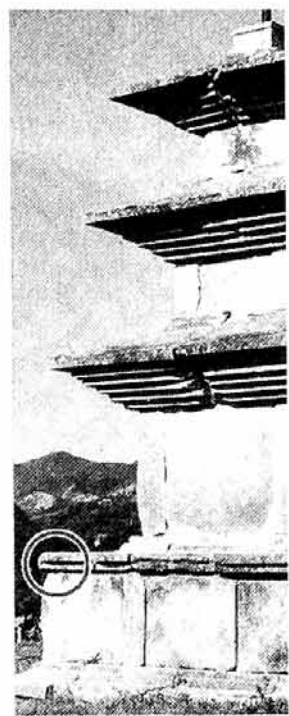


감은사·석탑·석가탑·다보탑

훼손 심각 '내려앉을 위기'



◇국보 112호 감은사지 동탑과 서탑 모두 균열과 중심축 이동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원내는 부실보수로 훼손된 감은사지 동탑의 갑석 모서리 부분.

국보 제20호 다보탑과 제21호 석가탑, 제112호 감은사지 3층 석탑 등 중요 문화재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 오랜 자연풍화 작용과 적절치 못한 관리로 인해 제 모습을 잃어가는가 하면, 복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훼손되는 등 석재문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8일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3개 탑의 훼손이 심해 적절한 보존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예정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석가탑과 다보탑 기반 위에 세운 면석의 틈이 3~4cm 정도씩 벌어지는 이완 현상이 생겼고, 석재 표면에서 염분이 배어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석가탑의 경우 석재가 얇게 벗겨지는 박리 현상과 석재결집이 다소 두껍게 일어나는 탈락현상이 생기고 있다.

다보탑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김수진교수(지구환경과학부)가 '탑 중앙부 곳곳이 검게 변색돼가고 있으며, 빗물로 인해 풍화가 촉진된 부위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표면이 떨어져 나간 곳에 이끼들이 창궐하고 있다'고 <불국사

다보탑의 훼손현황과 보존대책> 논문에서 훼손 사실을 밝혔으나, 당국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감은사지 3층 석탑(쌍탑)은 동탑과 서탑 모두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동탑의 경우 96년 보수작업을 실시했으나, 최근 3층 탑 몸체를 지탱하는 맨 아래쪽 기반부 내부의 갑석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몰하면서 그 위쪽의 덩개돌인 갑석 바깥쪽 모서리 세면이 위로 들려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석과 기반부를 싹 면석과의 사이에 손이 쏙 들어갈 정도의 틈(3~4cm)이 생겨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 8일 보도>

특히 동북쪽 모서리 갑석은 96년 해체 당시 원래 있던 갑석들을 들어낸 뒤 다시 채우면서 돌들을 원상대로 균일하게 배치하지 않아 그 틈 사이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감은사지 서탑도 석가탑과 마찬가지로 박리현상과 탈락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풍화로 석재에 금이 가고 중심축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제 258호 23면 기사 참조>

이은자 기자

행원문화상 상금 인상 이사회, 5천만원 증자

행원문화재단이사회장은 6일 이사회를 열고 5천만원의 증자를 승인했다. 이로써 총자산이 5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예술·역경·문학·대중예술 등 4개 부문으로 시상하던 행원문화상의 대중예술상을 예술상에 통합, 예술·역경·문학상 3개 부문으로 하고 각각의 상금 현 3백만원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또 공석중인 이사에 현 중앙승가대 총장 증병삼을 선임했다.

한편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4일 안양동 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다.

이경숙 기자

불교 교양대 200여곳 "신입생 모집합니다"

전국 200여개 불교교양대학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일제히 개강한다.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을 비롯한 각 불교대학은 특성에 맞게 불교학과 법사과 자비심리상담과 불심호스피스과 포교봉사과 불교미술과 불교음악과 등의 다양한 학과에 폭넓은 교과목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표 참조>

또 전북불교대학 등 10여개 대학은 교육시간이 맞지 않는 직장인과 타지역 및 해외불자들을 위해 인터넷 등화상을 이용한 원격강의도 실시한다.

전북불교대학 이준업 사무처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바른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교양대학 입학에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창립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증원·제주 관음사주지)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원발표 및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위원장 지하스님, 전국신도회 선진회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장 증원스님은 "불교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시대(성) 해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원스님은 최근 한라불교신문 발행인에 취임했다.

김재경 기자

장기기증 등록 7년새 18배

생명나눔회 집계...40대 기증을 최고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기증 등록자가 94년 170명에서 2000년 2,969명으로 7년새 18배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스님들의 장기기증도 활발했다.

오는 3월로 창립 7주년을 맞는 국제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

천회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사후 장기기증은 94년 157명에서 지난해에는 2,376명으로 늘었으며, 뇌사시 장기기증도 94년 7명에서 지난해 362명으로 증가했다. 신장·골수기증 등을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94년 170명에서 2000년 2,967명으로 18

배 늘어났다.

등록자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24.7%, 30대가 24.4%, 50대가 14.7% 순이었다. 불교신앙활동을 하는 세대가 40대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들 중년층이 장기기증에 대해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자가 2,939명, 남자가 2,835명으로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주부·학생·60대 이상 고령자가 4,990명(86.4%)으로 나타났다. 스님도 719명(12.5%)이나 됐다. 기증자의 종교분포는 불교가 5,618명으로 압도적이었으나 개신교 90명, 천주교 35명 등 타종교인의 기증도 적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chapia.com)

사찰돌며 강도행각 20대 남자 2명 영장

영동경찰서는 5일 전국의 사찰을 돌며 스님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정모씨(26)와 김모씨(29)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5일 오전 8시경 등산객을 가장해 영동 용원사에 들어가 '어머니가 영동 관음사에 있어 찾러왔다'며 주지 스님 등 4명과 차를 마신 뒤 갑자기 강도로 돌변, 스님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400여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찰에 들어갔다 나온 일당의 염망결과에 따라 미리 전화를 걸어 단교 자신들의 차량을 대기시켜 놓는 등 철저한 범행계획을 세운 뒤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침입, 청태이프 등으로 스님들을 묶고 금품을 강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경 기자

도와주세요

간이식 수술 이동성 법사

20여년간 불교포교를 위해 헌신해 온 이동성 법사(46, 장엄포교원장)가 급성 간염으로 지난 1일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주위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법사가 갑작스레 급성간염이 발병한 것은 지난해 12월말, 간이식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던 이 법사는 서울 중앙병원에서 아내와 조카로부터 간을 이식받은 22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억5천여만원이나 드는 수술비와 치료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수술비 착수금 8800만원은 포교인 입원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했지만 나머지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수술 후 월 150만원이나 드는 치료비를 2년간 부담하며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처지다.

도움주실 분은 043646-3023(장엄포교원), 국민은행 403-21-0931-745, 농협 421012-52-243141 이상 예금주 최경환을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과학기술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보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각종 단 승려 ·포교사
불 교 학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인등록등본 1통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의대입학과정)과	■주간 30명			
포 교 사 과 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준비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준
1991.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제1회 졸업생 배출(대기전 불교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2.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1993.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132명
1994.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문교 체질·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불교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중국대학과 불교대학원 지도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2월 24일까지
- 전 형 방 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 ~ 8 FAX. 02)511-1080
- E-mail :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불교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1. 학과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 수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 사진 3매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25-6798171 팩 스 :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 전화 : 02-511-2026~8 팩 스 : 02-511-1080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1. 학과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2. 특 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65-887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3. 대학 소개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대